



2024년 8월 4일(제1205호) 연중 제18주일

군중주보

발행 : 군중교구 홍보국 | 전화 : 02)749-1921, 02)900-7756 | FAX : 02)790-5768 | http://www.gunjong.or.kr | email : hongbo@gunjong.or.kr

말씀

“기적 너미에 계신 히느님을 바리보고 믿음시다.”

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의 다음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지난 주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오천 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이신 뒤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만 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자,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.

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, 군중을 떠나 홀로 산속으로 물러가셨습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움직이셨지만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. “라빠,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?” 군중의 이 말은 예수님을 정말로 라빠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, 또다시 굶주린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길 바라는 군중의 요구가 잘 드러난 말입니다.

오늘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. 분명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은 하느님이신데,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만을 바라보고, 이 기적이 모세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보았을 뿐,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기적을 통해 표징을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군중

역시,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자신들이 배불리 먹은 기적만을 바라보았을 뿐, 이 기적을 통해 표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.

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 군중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?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러 미사에 올까요?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, 혹시나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기적을 계속 청하기 위해 성당에 오진 않을까요?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주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유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!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.

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방향 지어집니다. 기적 때문이 아니라,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. 아멘.



민형주(비드로) 신부
명성당(공군 제8진투비행단) 성당 주임

제 1 독 시

탈출 16,2-4.12-15

회 답 송

◎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.

제 2 독 시

에페 4,17.20-24

복음 권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. ◎

복 음

요한 6,24-35

영 성 제 송

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.

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.

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

열다섯 번째 시한

사실 사본 문답 전체를 완벽하게 익혀서 세례 준비를 마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. 사본 문답을 전부 배우자면 몇 해가 걸려야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.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교리 공부를 하여도 사본 문답을 다 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

이 서한의 첫머리에서 1858년 7월 26일에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서한과 회람 공문에 대해 감사를 드리려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. 이 공문을 보고 동료 신부님들한테서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.

작년에 주교님의 허락을 받고 신부님께 여러 가지를 청구하였는데, 아직도 보내시지 않았다면 신속히 구하시어 기회 있는 대로 빨리 보내주십시오.

이번에 또 한 가지를 청구하겠습니다. 서양 음악을 여러 가지 음향으로 소리가 잘 나게 연주할 수 있는 견고하게 만들어진 악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. 여러 개의 건반이 딸려 있는 약 30프랑짜리의 것으로 보내주십시오. 대금은 제가 주교님께 올리겠습니다.

또 무엇보다도 저 자신과 저의 신자들을 위해 신부님께서 열렬하신 기도를 많이 드려 주시기를 청합니다. 또 가장 훌륭한 선교사 신부님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조선에 보내주십시오. 그리고 아마 주교님께서도 신부님께 부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, 조선으로 배정되는 각 선교사 신부님들에게 사천(四川) 대목구 시노드(synodus) 회의록을 한 권씩 주시고, 특히 회의록 제10장과 부록 14조부터 끝까지 잘 읽게 해주십시오. 미리 잘 읽어 두어야 할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.

폐롱 신부님께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,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폐롱 신부님께 대하여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. 그러나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질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 다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, 우리 둘은 서로 단짝입니다. 폐롱 신부님은 지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. 신자들한테 사랑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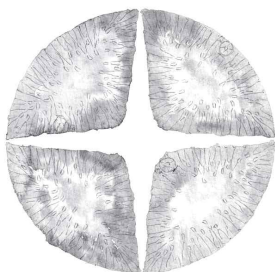
공경하올 스승님께, 지극히 순종하는 조선 포교지의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.

『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』 발췌,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

복 음 록 상

- 배영길(베드로) 신부 / 예수회

뭐가 보여?



뭐가 보여?

사람들이 보여.

나는 소소한 우리의 삶이 보여.

나를 사랑해 주는 이들이 보여.

그 안에 숨 쉬고 살아가는 나.

가족.

이웃이 보여.



▶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,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!

상화이야기

민나를 모으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



니콜라스 푸생, 1637년 ~ 1639년경 제작
캔버스 위 유화, 149x200cm / 파리 루브르미술관, 프랑스

이 그림은 일견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, 푸생은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가 내리기까지의 점차적 과정과 사람들의 반응을 잘 그려내었다.

왼쪽에 보면 대여섯 명의 인물들이 가장 전경에 보이는데 이는 배고픔에 허덕이는 인물들로, 굶주린 자기 모친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여인과 힘없이 기대있는 노인,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이 보인다. 이중 한 남성이 가리키는 곳에는 땅에 내린 만나를 발견하고 굶고 있는 인물들이 보인다.

그런데 이들은 어떠한가? 어떤 이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, 어떤 이들은 만나를 남보다 더 많이 굶기 위해 다투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을 말리고 훈계하고 있다.

그 뒤 중앙에는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데, 어떤 이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이들을 칭송하고 있다. 이 상황에서도 생명의 빵과 일상의 빵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.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이 인물 중 누구처럼 행동할 것인가?

김은혜(엘리사벳)

교 구 소 식

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- 연중 제18주일: 백미대 봉상준 신부

◆ 교구장 동정

- Knights of Columbus 연례모임

때: 8월 4일(주일) ~ 13일(화)

◆ 교구 행사

- 국장회의

때·곳: 8월 6일(화), 해군중앙 성당

“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성사의 해” - “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.” (1요한 1,9)